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자 례

대회사	2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프로그램	4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5	김명순 (부스려기선교회 협동총무, 빈민여성교육선교원 원장)
여성권의 디딤돌	6	김창자·이시형, 이승호, 김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 특성본부 “그것이 알고 싶다: 폭력남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편”
여성권의 걸림돌	7	송기홍, 원철희, 윤주영, 엄영란, 김영환
함께하는 사람들	8	남인순, 박경희, 변창립, 밴드「마고」, 신효범, 한영애, 허수경
99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 수상자	10	김보연, 박찬숙, 무슨연구소, 노래도적, 진천여성회관 주부풍물패, 관촌회, 수원여성의 전화미혼여성소모임, 김민정, “진달래와 무궁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한국여성단체연합	17	지부, 회원단체, 참관단체
참가단체	18	

그림설명 : 이 그림은 Jean Gauthier가 SACE(에드먼튼 성폭력센터, 캐나다 소재)에 기증한 '평화'라는 작품으로 SACE의 도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희영 디자인/그래픽서신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여성의 정치 · 경제적 주류화와

지 은 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천년 1년을 앞두고 91주년「3·8세계여성의날」기념 제15회 한국여
성대회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하고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내빈들께 감사
드리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에서 올라오신 회원단체와 특히 여성운동과
의 연대와 우정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여성들은 IMF한파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가부장제 가치가 부활하고 있어 남녀평등사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
니다. 여성우선해고,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조정, 결혼퇴직제 부활, 여성노동자
의 비정규직화(여성노동자 중 62.2% 차지, 322만5천명) 증가 등 직장내 성차

별과 고용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불가능한 실직여성가장(10여만명)이 증
가하면서 여성의 빈곤화가 급격히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수난시대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우선해고 반대, 실직여성가장 긴급구호활동, 고
학력 여성의 고용창출과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아동생활지
도' 공공근로사업 수행, 가정폭력범죄 예방 캠페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30% 여성
할당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몰아치는 세계화의 광풍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200만이 넘는 실업자, 무
한경쟁에서 탈락한 여성노동자,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가족해체, 비료값·사료값 폭등
으로 몰락하는 농가,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빈곤과 풍요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해체되고 있으며 대다수 서민은 미래를 포기한 채 좌절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진보의 역사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 왔고 위기를 기회
로 만들어 온 것도 인간의 힘입니다. 위기는 지난 시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본
주의가 만들어 낸 물신주의, 소비만능, 무한경쟁으로 인한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을 되돌아 보게 합니다. 지난 20세기는 남성이 지배하면서 전쟁, 부패, 폭력, 차별, 환경파괴
등으로 일관되어 왔다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은 여성의 지도력으로 평등, 평화,
인권,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미 지구촌 사회가 남성중심 패러다
임에서 남녀평등사회·남녀공동참여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싹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오기 전에 꼭 개혁해야 할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힘모아 전진합시다.

□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와 육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 농어촌여성, 가내여성노동자에
게 국민건강보험에서 기초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다, 그리고 보육시설·방과후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아동보육료를 차등지원하여 누구나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을 독립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인1연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장애인, 여성노인의 복지를 위해 여성복지 관련 예산을 복지부 예산에서 10% 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실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종합 보건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일정소득 이하의 여성에게 생계보호, 주거·교육·의료·재산보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여성인력 육성과 고용평등, 고용촉진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육성을 위해 학교,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인사 및 고용형태에서의 간접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규직을 대체하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5, 7급 공무원과 공기업에서의 30% 여성고용·승진 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가부장제 가치관을 대표하는 호주제도 및 민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 남아선호로 인한 불법적인 여아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부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도 및 부가입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2000년까지 정치·공직·정책결정기구에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당법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각급 선거에서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국무위원 중 여성비율을 30% 유지하고 7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될 때까지 채용 및 승진에서 여성할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가 될 때까지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 연계 등을 위해 여성정책전담부서로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신 '여성처' 또는 '여성청소년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프 · 로 · 그 · 램

아 외 행 사

오후 1시
KBS홀 앞홀

여연의 회원단체, 시민단체의 이벤트부스

- 홍보물전시, 회원가입, 서명운동, 물품판매 등

여성미술과 함께하는 축제한마당 (여성미술그룹 「도마」)

- 모빌전시 '당신의 입으로 말하라'
- 대중과 함께 하는 만화포스터 전시

페이스 페인팅

- 인간해방을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무료로 그려드립니다.

본 행 사

기념식 / 사회 : 남인순(여연 사무처장) 박경희(KBS 아나운서실 부장)

- 회원단체 기수입장
- 대회사 : 지 은 회(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축하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윤후장 위원장,
보건복지부 김모임 장관, 문화관광부 신낙균 장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 녹색연합 장원 총장, 연극배우 손숙
- 내빈소개
-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문화공연 / 사회 : 허수경(방송안) 변창립(MBC 아나운서실 차장)

- 여성권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
- '99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 수상작 공연
-진달래와 무궁화 '통일기원 시와 노래'
-박원숙 '소나기'
-이혜원 '우리는 자매'
- "여성문제, 나도 할 말 있어요" : 관객참여 발언대
- 축하공연
-한영애 '코랄소', '조율'
-밴드 [마고] '나는 나', '인당수'
-신효범 '세상은', '난 널 사랑해'

아 외 행 사

KBS 홀에서 영등포역까지



수상 이유

강명순님은 지난 25년동안 빈민지역에 살면서 빈민여성사회교육과 공부방운동을 통해 여성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IMF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위기가정의 결식아동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아동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여 가족해체 예방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1999. 3. 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강 명 순 (부스리기선교회 협동총무, 빈민여성교육선교원 원장)

주요 이력

- 1970. 2 부산경남여고 졸업
- 1974. 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시청자교육과 졸업
- 1976~79 회망교회 부속 회망유치원 원장 (사당3동 빈민지역)
- 1980~83 광야교회 부속 광야선교원 원장 (부평공단지역)
- 1987. 4~8 영국버밍햄 Kingsmead College 선교연수
- 1987. 8 미국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초청 빈민선교연수
- 1988. 3 NewYork 사립대학교 Communication과정 수료
- 1996. 8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1998. 3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입학

주요 경력

- 1988 ~ 97.2 부스리기선교회 총무 (현재는 협동총무)
- 1990 빈민여성교육원 원장
- 1996 예은여성학교(문명여성교육기관) 교장
- 1997. 2 ~ 현재 예은교회 담임 전도사
- 1998 안산가정문제상담소 및 예은청소년문화센터 소장
- 1998 ~ 현재 안산시립어린이·청소년 센터 신나는집 원장(문화센터 이전 후 개칭)
- 현재 전국 31개의 지역에서 신나는집 운영 중(부스리기선교회 소속)
- 결식아동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및 정책제안
- 결식·빈곤·실직·위기·결손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적 지지활동 전개

저 서

- 1985 「빈민여성 빈민아동」
- 1991 「교회·방치아동·탁아소」
- 1992 「긴사연 짧은 얘기」 (가난한 여성 사례연구)
- 1993 「가난한 지역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공동육아 활동자료집」
- 1997 「하나님사랑·이웃사랑」
- 1998 「호박넝쿨의 기적」 (황파 학교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황혼이혼 소송제기로 여성노인의 인권문제 부각한 김창자, 이시영 할머니



남편의 계속되는 구타와 외처증, 비정상적 행동 등 더 이상 참고 지내기 어려운 만큼 모욕적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인간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의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한 김창자할머니와 심었 을 때부터 자행되어 온 남편에 의한 정신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재산 중 일부(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를 대학에 기증한 남편과 하루라도 함께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시영 할머니.

여성노인의 인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김창자, 이시영 할머니의 이혼소송 사건은 현법이 명시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마땅히 이혼에 대한 결정권은 나이가 많고 적응이나 생별과 무관하게 인정받아야 마땅할 인간의 권리임을 드러내었다.

전국 최초로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 을 지급한 이승호 군수 (강원도 인제군)

199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축산 가정에 출산보조금을 지급하였다. 97년에는 한 산모당 10만원씩 2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98년에는 주민의 호응으로 100%인상하여 한 산모당 20만원씩 36명을 지원하였다. 이는 농업이 자영업으로 구분되어 출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 지급을 통해 여성농민의 모성을 보호하고 농업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 명시를 정책화 한 김희선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에서 정치인으로써 고군분투 하고 있으며,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장 으로서 당내 반발을 설득하여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를 명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여성할당제 30%를 명시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의 입장에서 다수의 여성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여성집중 부서가 구조조정되는 것을 노동조합 단결로 막아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 특성본부

최근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집중 직종과 부서가 우선적으로 피출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 식당 여성노동자들을 용역으로 물리자는 사측과 보훈처의 의도를 오랜기간 투쟁으로 막아 냈다.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와 고용악화 문제를 도법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정착화에 기여한 다큐프로그램 SBS 문성근의 다큐 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폭력남편-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편" (연출: 허강일, 민인식 / 98년 12월 6일 방영)

지난해 12월 6일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5개월을 맞아 피해자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가정폭력 의 심각성을 파헤쳐 가정폭력이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시행 5개월째 자칫 실종할 수 있는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꼼꼼히 짚어 나감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법 정착에 기여했다.

여성권의 걸림돌

결혼약속하면 성폭행도 용서될 수 있다고 판결내린 **송기홍 판사**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송기홍 판사는 성폭력피해자인 여고생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폭행이 일어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성폭력을 상관제나 순결상실로 간주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책임만 지겠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범죄를 합법화한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리하고 0순위=기혼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 이행한 **원철희 전 회장** (농협중앙회 전 회장)



농협중앙회 원철희 전 회장은 자체 내 구조조정을 통해 704명의 사내 부부직원 중 691명의 여성을 퇴출시켰다. 둘 중 한사람이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1년간 강제휴직을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을 하라고 종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기혼여성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시킨 명백한 성차별적 고용행태이다.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인식처이기를 포기하고 노조탄압·여성폭행 방조한 **윤주병 원장** (대전 성모병원 원장)

대전성모병원 윤주병 원장은 지난해 초 '종파업'을 이끈 노조간부 3명을 중징계하고, 악랄한 노조탄압 행위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구사대를 동원해 여성노조원들의 뒷도리를 벗겨 브래지어와 탭살을 드러내고, 허리띠까지 강제로 풀어헤쳐 팬티까지 보이게 하는 등의 성폭행을 자행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겨야 할 카톨릭 사업장에서, 윤 원장은 집단폭행·성폭행·보복폭행 등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광고 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 심화시킨 "허벅지 PCS폰" 광고주, **김영환 사장** (현대전자 사장)



현대PCS폰 '걸리버'의 광고주인 김영환 현대전자 사장은 여자주인공이 허벅지를 모두 드러내면서 스타킹밴드에 끼워둔 PCS폰을 꺼내드는 광고를 방송하고 있다. PCS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어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여성을 성상품화한 전형적인 광고이다. 그 어떤 매체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을 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미디어 내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대착오적 '순종·인내 여성관' 부르짖는 안방극장의 무대포, **엄앵란** (방송인)

방송인 엄앵란은 공인으로서 대중적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에도 불구하고, 아침 주부대상 프로그램(KBS 1TV '아침마당')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아유, 그 집엔 이제 아들이만 낳으면 백점이네요, 백점!", "집안에 황은 꼭 하나만 있어야 돼요" 등 여성의 '인내'와 '순종'을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가부장 의식을 전파하고 있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여성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58년 개띠이다.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여성운동에 뛰어들지 10여년.
88년 인천 일하는여성의나눔의집 간사.
89년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거쳐
9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실무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본인은 여성운동을, 남편은 환경운동을 하며
운동권부부(?)로 살아가는 그는 인천 만수동에서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회의집까지
매일매일 오가며 일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번에는 성공회대 대학원에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입학해
정말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박경희 (KBS 아나운서)

얼마전 방송국 내 첫 번째 여성 부장이 탄생했다고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의 직책은 정확히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 부주관이라고 한다.
1977년 서울대학교 가정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KBS에 공사 4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투해전에는 미국 UCLA에서 Mass-Communication과정을
이수할 정도의 학구파이기도 한 그녀는 자외반 타의반으로
방송국 내 여자후배들의 대모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 첫 번째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10배 이상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이를 보면서 걱정되지 않는 건 왜일까?



변창림 (MBC 아나운서)

41세. 1984년 12월에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였다.
MBC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집요한 전문인터뷰어라고
평가받으며 주로 들고 찍는 ENG카메라와 함께
[여론광장], [뉴스투데이]의 '현장출동', [아침이 좋다]의
'전격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가 들이대는 마이크는 항상 일종의 고해성사를
이끌어내는데, 거기엔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 얘기다.
그 무엇이든 바로 그 자신의 솔직 담백함때문이라는
주변의 이야기에 그저 웃기만 하는 사람.
현재는 [용기 100배, 희망 100배]와
[다큐멘터리 성공시대]를
진행하고 있다.



밴드 「마고」

96년 말에 만들어져 97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5인조 Rock밴드이다.
밴드 「마고」가 추구하는 음악의 내용은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와 관습, 관념에 대한 도전이며
그 틀로부터 인간의 자유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 내용적 지향점을 Rock이란 음악적 장르로 소화하고 있다.
지금 밴드 「마고」는 1집앨범 녹음 중이고 4월에 음반으로 인사하겠다고 한다.
보컬에 유연이, 기타 송석진, 드럼 박이엘, 건반 김보연, 베이스 권정현이 함께 한다.



신효범

1988년 MBC 신인가요제에서 "그대 그림자"로 금상과 가창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탁월한 가창력과 짙은 호소력으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려진 대형 여성가수 중 한 사람이다. CIS국제가요제 금상, 스포츠서울 가요대상, 일간스포츠 골든디스크 대상, KBS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대한민국 예술상 대통령 표창 등 수상경력을 열거하기에도 지면이 모자란 그녀는 국내 여자가수 최초로 라이브음반을 발표하고 장애인들기 [사랑나눔 콘서트]를 여는 등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사명도 다하고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7집 Ego로 여전히 바른 나팔을 보내고 있다.

한영애

1976년 '해바라기'를 창단하며 음악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 순회공연을 가지며 85년에 1집 앨범 "한영애"를 발표하고, 88년에 프로젝트 팀인 '신혼블루스'를 결성하였다.
"코랄소", "루실", "누구 없소", "조율"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아주 편안히 소화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는 크고 작은 환경콘서트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연에도 마다않고 출연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작년 12월 개인콘서트 "비상구"를 청동문화예술회관에서 갖고 지금은 4월에 발표될 5집을 위해 뛰고 있다고



허수경 (방송인)

1989년 MBC MC 공채 1기로 방송에 입문하였다.
'정보데이트', '경제산책', '도전추리특급', '아침만들기', '선택! 토요일이 좋다', '정오의 희망곡' 등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도 벅차다.
방송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녀는 어디서나 꾸밈없고 환하기만 하다.
수수해서 더 빛이 나고, 밝은 미소속에 깃든 내면의 성숙함이 모두에게 친근함을 주는 당찬 여자, 허수경.
얼마 전 [허수경의 미소 하나 눈물 두 스푼]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지금은 SBS Radio '허수경의 해피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한년!

수 상 작

노래부문

대상 : 『우리는 자매』 / 김보연

우수상 : 『쏘나기』 / 박찬숙

우수상 : 『진공청소기』 / 무슨연구소

장려상 : 『우리가 살아 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 노래도적

단막극부문

대상 : 『엄마의 홀로서기』 / 충북 진천여성회관 주부풍물패

우수상 : 『자화상』 / 권춘희

장려상 : 『나 이런 사람이에요』 / 수원여성의전화 '미혼여성 소모임'

춤부문

우수상 : 『길 위에 읊다』 / 김민정

특별상

『통일기원 시와 노래』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소모임 '진달래와 무궁화'

인기상

『핑계대지마! 호주제 폐지해!』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들



우리는 자매

유연이 작사
김보연 작곡

김보연씨가 작곡하여 훌륭한 작품. 여성들의 자매애라면 힘겨운 지금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으니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내용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우리는 자매" (We are Sisters). The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e lyrics are: 손 을 잡 아 요 — 늘 힘 들 잡 아 요 — 웃 어 보 아 요 — 저 태 양 처 럼 — 함 께 걸 어 요 — 그 대 외 립 잡 아 요 — 고 갓 들 어 요 — 잠 시 걸 음 을 멈 — 추 고 다 시 너 의 꿈 을 안 고 하 늘 을 봐 요 — 저 눈 부 신 태 양 모 두 다 가 지 고 일 어 나 요 — 손 을 잡 아 요 — 그 리 고 걸 어 요 — 새 름 게 — 손 을 잡 아 요 — 함 께 걸 어 요 — — 저 넓 은 세 상 처 럼 — (전주 간주 후주)



쏘 나 기

고재종 작사
박찬숙 작곡

여성농민 박찬숙씨가 고재종님의 시에 직접 곡을 붙여 출판하였다. 여성농민의 고단한 하루일과가 민요조의 가락에 잘 담겨져 있다.



진공 청소기

무슨연구소 작사
무슨연구소 작곡

아마추어밴드인 '무슨연구소'가 공동창작한 작품이다. 성감별에 의해 세상에 태어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워져버린 여아들의 절규를 담았다.

내가 - 보 이 나 요 내 존 재 를 느 끼 나 요

감 사 - 한 적 있 나 요 - 나 를 가 질 수 있 었 음 을

생 각 한 적 있 — 나 요 내 가 보 고 싶 어 할 거 라 고

내 가 당 신 에 — 에 게 서 지 워 지 기 를 바 댔 나 요

기 억 처 럼 그 — 령 계 지 워 버 릴 수 있 을 거 라 고
갈 갈 이 찢 — 겨 진 조각 처 럼 지 워 버 리 면

아 무 도 모 르 게 그 건 당 신 의 오 해
잊 어 버 릴 수 있 을 거 라 고 그 건 당 신 의 착 각

아 파 는 어 디 있 나 요 — 버 림 받 는 나 를 — 알 고 있 나 요

다 음 세 상 — 에 선 나 도 빛 을 보 게 해 — 주 세 요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김혜순·노주원 작사
노태도적 작곡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한국성북력상당소에 서 자원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노래패 [노태도적]이 출품하였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판을 치는 세상속이지만 여성들의 당당한 자기주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사

랑 을 사 라 고 목 놓 아 외 치 는 간 관 아 래 - 사

랑 을 사 고 팔 아 서 살 아 가 는 시 대 아 래 - 사

랑 의 목 마 르 라 커 대 는 T V 광 고 아 래 - 사

람 들 의 두 눈 을 멀 게 해 돈 을 받 는 시 대 아 래 우 리 는

서 — — — — — 있 — 다 — — — — — 두 발

로 온 몸 으 로 — — — — —



단막극부문 대상

엄마의 홀로서기

제15회 성문화제 새 세로운 청년의 본선



충북 진천여성회관의 주부풍물패가 출품하였다. 딸놀이마당극의 '전업주부마당'을 일부 각색해 풍물극으로 재구성하였다. 남편이 무시하고, 아이들은 상대해주지 않는 전업주부의 고민을 같은 풍물단원이 풍물의 원리와 접목시켜 설명하는 마무리가 절묘하다.

출품문우수상

길 위에 올라



대학에서 무용을 배운 김민정씨가 출품한 작품이다. 아이에서 소녀로, 여자로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과정속에서 수많은 제약과 불합리속에 상실된 자아를 인식한 여성이 너무 늦어버린 자신의 인생의 길 위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허망해하는 심정을 독백과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단막극부문 우수상



자와상

경북대학교 96학번인 권춘희씨가 출품한 모노드라마이다.

다. 웬만한 연극배우들도 겁내하는 모노드라마를 보여줄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갖추고 있다. 한 할머니의 입을 통해, 여성이 일생동안 얼마나 남성에게 집착하며 살았으며 그 굴레를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그렸다.



나 이런 사람이예요

수원여성의전화의 '미혼여성소모임'에서 출품하였다. TV 프로그램인 '청춘합시다'를 패러디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단면을 소개하고, 그 대응방법을 표현하였다.

단막극부문 장려상

특별상

통일기원 시와 노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소모임 '진달래와 무궁화' 회원들인 탈북여성들이 참가하였다. 북한의 노래와 시 낭송으로 엮어, 노래를 하는 사람도 울고 관객도 울고, 급기야 심사위원까지 울린 죄(?)로 특별상을 받았다.

성문화제 새 세로운 청년의 본선



인기상

땡계대지마! 호주제 폐지해!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들이 꾸렸다. 호주제 존속으로 발생하는 코믹한 일상생활과 폐지를 향한 주장이 기발한 퍼포먼스와 김건모의 '땡계'를 개사한 노래에서 잘 드러나며 관객의 웃음을 가장 많이 자아내 인기상을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원주소록

한국여성단체연합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02)2273-9535 전송:02)2273-9539

한국여성단체연합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전화 : 0343)383-8808 전송 : 0343)383-61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4-15 김산부인과 지하 (430-00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화 : 062)225-8078 전송 : 062)225-8078
광주광역시 동구 하1동 112-3번지 초남중 내과 7층 (501-191)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화 : 053)475-8084 전송 : 053)472-1711
대구시 남구 봉곡3동 561-48 진부빌딩 2층 (705-023)

●부산여성단체연합

전화 : 051)817-4321 전송 : 051)817-43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614-042)

●전북여성단체연합

전화 : 0632)287-3459 전송 : 0632)287-12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광원동 1가 108번지 전북은행 3층 (560-020)

한국여성단체연합외원단체

●경남여성회

전화 : 0551)282-9905 전송 : 0551)282-9606
경남 창원시 대방동 56B 1L 남산복지회관 (641-100)

●광주여성회

전화 : 062)225-0132 전송 : 062)225-0152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4-2 상호회관 2층 (501-030)

●기독교여성회

전화 : 02)2265-7367 전송 : 02)2263-809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2층 (100-391)

●대구여성회

전화 : 053)421-6758 전송 : 053)424-1245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232-2 보성빌딩 4층 (700-421)

●대전여성회

전화 : 042)257-3534 전송 : 042)221-7296
대전광역시 중구 동촌동 102-2번지 배인화원 2층 (301-080)

●부산성폭력상담소

전화 : 051)513-2475 전송 : 051)513-247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67-43번지 (609-022)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전화 : 051)622-2115 전송 : 051)621-495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8-4 새광빌딩 5층 (613-011)

●새마을여성회

전화 : 02)747-2442 전송 : 02)747-2447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50-17 (110-510)

●새움터

전화 : 0351)867-4655 전송 : 0351)867-4655
경기도 용문천시 상안4동 541-39 11/4 (483-034)

●성폭력예방지원센터

전화 : 0652)283-9647 전송 : 0652)287-1656
전주시 완산구 광원동5가 39-10 국제화재 4층 (560-020)

●수원여성회

전화 : 0331)238-1564 전송 : 0331)235-67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동 140-1 3층 (441-220)

●안양여성회

전화 : 0343)441-3030 전송 : 0343)443-673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1동 1397-7 현대빌딩4층 (430-017)

●여성사회교육원

전화 : 02)2278-7705 전송 : 02)2278-7706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31 천성빌딩 3층 (100-391)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화 : 02)529-6349 전송 : 02)529-6332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38-6번지 뉴궁전빌라 302호 (137-132)

●제주여성회

전화 : 064)749-0261 전송 : 064)744-0259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3-16 3층 (890-170)

●충북여성민우회

전화 : 0431)263-8124 전송 : 0431)263-81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19-26번지 6/3 (361-140)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전화 : 02)2264-8649 전송 : 02)2275-488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100-391)

●포항여성회

전화 : 0562)275-7436 전송 : 0562)275-7436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5 5/2 2층 (790-140)

●한국보육교육사회

전화 : 02)2275-8505 전송 : 02)2275-8506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100-391)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 02)576-5513 전송 : 02)576-712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번지 경원빌딩 4층 (137-130)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화 : 02)708-4620/1 전송 : 02)708-462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6호 (110-470)

●한국여성민우회

전화 : 02)737-5763 전송 : 02)737-7883
서울시 종로구 경동 27-9 동광빌딩 4층 (110-102)

●한국여성연구소

전화 : 02)887-8196 전송 : 02)885-0625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1층 (151-057)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전화 : 02)2275-7754 전송 : 02)2269-0670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100-391)

●한국여성친화연대

전화 : 02)2269-2962 전송 : 02)2269-2966
서울시 중구 신당1동 236-509 은차빌딩 5층 (100-451)

●함께하는주부모임

전화 : 053)425-7701 전송 : 053)425-770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4가 81 미봉빌딩 4층 (700-424)

한국여성단체연합참관단체

●울산여성회

전화 : 052)292-7440 전송 : 052)296-0304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91-7번지 늘푸른서점 5층 (681-22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화 : 02)790-3153 전송 : 02)798-6094
*서울시 용산구 함정로3가 40-474 2층 (140-013)

제15회 한국여성대회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화: 754-8841 전송: 757-7383
- 녹색연합
전화: 747-8500 전송: 766-4180
- 대한여한의사회
전화: 649-1240 전송: 642-9295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화: 522-7284 전송: 522-7285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화: 763-2606 전송: 745-560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521-5364 전송: 584-770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화: 675-6181 전송: 675-6184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화: 529-6347 전송: 584-7701
- 전국여성장애인연합(준)
전화: 521-5364 전송: 584-7701
- 참여연대
전화: 723-5300 전송: 723-5055
- 청년정보문화센터
전화: 708-4615 전송: 708-461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화: 745-4943 전송: 744-6189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화: 739-6851 전송: 739-685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화: 365-4016 전송: 365-4017
- 환경운동연합
전화: 735-7000 전송: 730-1240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난 12년간의 노고와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0년대의 마지막 3.8여성대회가 있기까지

한국여성대회를 여성들의 축제로 만드는 데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도 여성들과 함께

올바른 사회 ·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날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날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해 두세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구의 동과 서에서,
당신들의 이제껏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로써 비로소 당신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 날은 그저 악하기만 한 당신이 '여성'임을 자각하는 순간,
운명처럼 여겨지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15,0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하늘 아래 여자와 남자는 다를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 여성시위 몇 년 뒤 콜라라 제트킨을 비롯한 세계 여성지도자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날'로 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5년부터 이날 여성대회를 열고, 그해 여성운동을 빛낸이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주고 있다.

amORE

헤라 큐빅 99 Cubic 99



• 무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 유조 섀도

유혹이 아름다운 여자 - 헤라

HERA

• 유혹 약화점(이) 이모와 카운셀링(이)와 상담하여 구입하세요
• 고객센터(080-023-5499) (주) 헤라 화장품(주)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more.co.kr>

남녀차별없는 사회!

새정치국민회의가 여성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가족부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고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성평등 도서관 여가
기록하고 여성
을 기록 여성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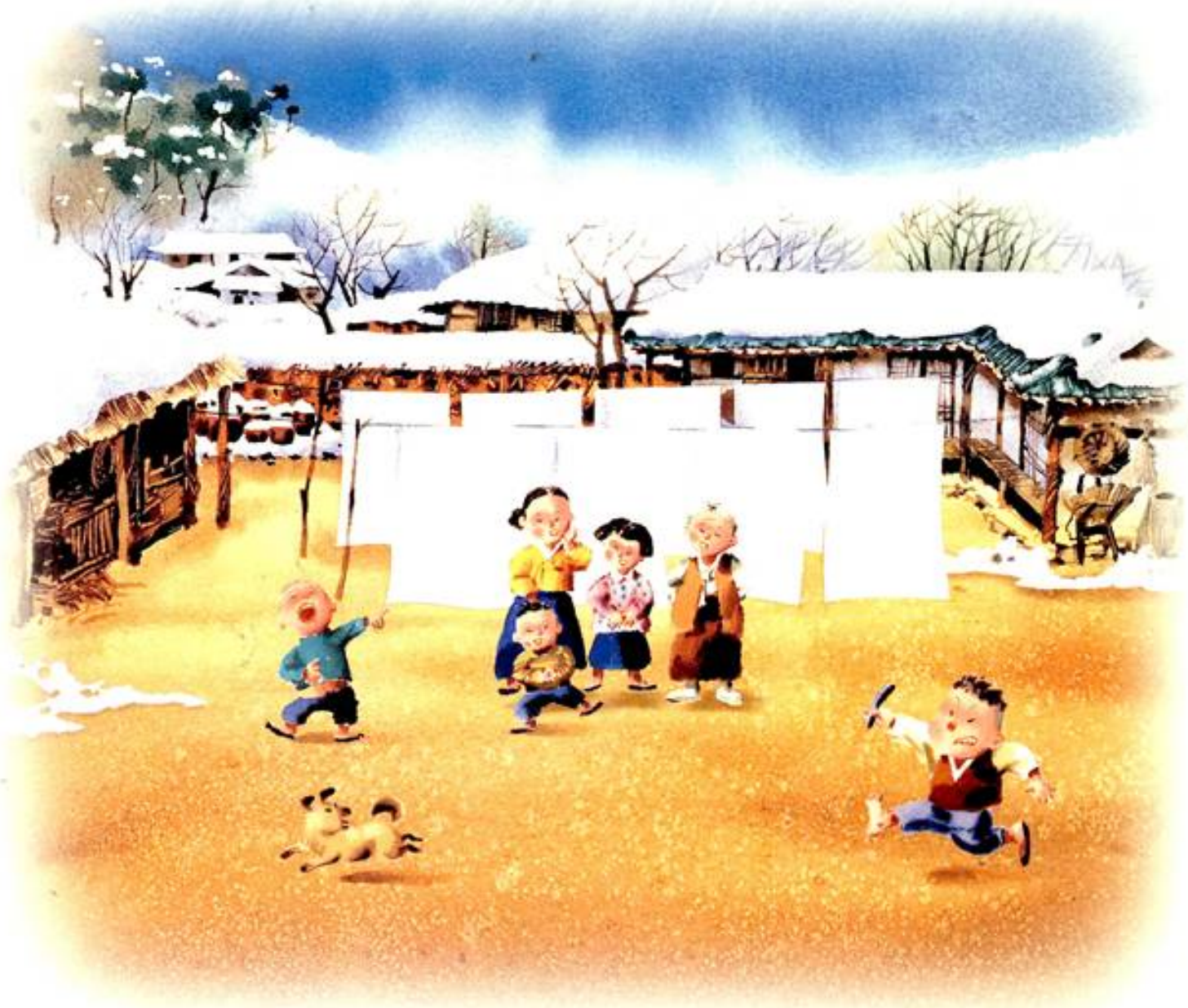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새정치국민회의는 여성이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어머니 손끝에서 빨랫감이 때를 벗으면
세상은 온통 시리도록 눈이 부셨습니다

세탁기 한 대 변변히 없던 그 시절, 어쩌면 그때 어머니가 빨래터에서

어깨 저리도록 하얗게 헹궈낸 것은 눈부신 빨래가 아니라

한 점 티 묻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마주하고 싶은 그 시절,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던 마음-

가족처럼 늘 곁에서 삼성전자가 소중한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가족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기술 -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99년 3월 7일(日) 오후 2시

KBS 홀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기획 여연문화위원회

후원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KBS 한겨레신문사 주여성신문사

협찬

생명공학 개척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
자연에서 찾은 행복을 남양알로에가 전합니다.

알로에 과학화를 넘어 생명공학의 시대로
남양알로에가 건강한 세상을 열어 갑니다.

20년동안 자연을 연구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각종 유효성분을 추출해낸

알로에 신약연구에서 천연생명공학연구까지 —
이제 그 모든 성과를 모아 남양알로에가
생명공학에의 새시대로 나아갑니다.

연구업적 알로에 과학화에서 천연생명공학 연구까지

- 1976년, 국내최초 알로에 시험재배 성공
- 1985년, 국내최초 알로에 제품화 성공
- 1988년, 국제알로에 기준심의협회(I.A.S.C) 가입
- 1989년, 알로에연구재단(A.R.F) 설립
- 1991년, 천연약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1993년, 프랑크푸르트 유럽알로에 심포지움 개최
- 1993년, 알로에 신약연구(CAP PROJECT) 발대
- 1994년, 알로에 신약연구 1차 발표
- 1995년, 알로에 신약연구 2차 발표
- 1995년, 남양알로에 I.A.S.C 품질인증마크 획득
- 1995년, 알로에추출물 7종 발견, 국내 및 국제특허 출원
- 1996년, 알로에 신약연구 3차 발표
- 1996년, 유니베라 파이토슈티칼 천연생명공학회사 설립
- 1998년, 장영실상 수상(리망 알로화이트닝)
- 특허출원 알로에 추출물 8종 세계 특허출원
 - NY931(간세포 성장촉진 및 간질환 치료에 관한 물질)
 - NY932(혈관생성 촉진물질)
 - NY933(항암, 상처치유효과 물질)
 - NY944(표피, 점막세포 재생촉진 및 위궤양치료 효과물질)
 - NY945(항알레르기 추출물질)
 - Immuno-10(인체면역체계 조절물질)
 - NYK-1(신장독성 억제성분)
 - 알로화이트(미백성분)

Nature's Best

본 기업이 생산한 알로에 추출물 100%
본사에 등록된 상표와 제품명
상표와 기타 모든 사항은 본사에
등록된 것입니다.

Nature's Best
남양알로에

고객상담실전화 (080)022-7575